

<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하는 대로 되고, 안 하는 대로 안 된다.
2. <실 가닥만 한 길>이 있든지, <모래알만 한 하고자 하는 마음>이 있으면,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진다. 나중에는 ‘큰길’이 되고, ‘바위덩이’가 된다.
3. <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>이 없어도, 한 번 ‘기도’를 하든지, ‘노래’를 하든지, ‘일’을 하든지 해 보아라. 자꾸 하다 보면, <처음에 없던 마음>도 생기고, <남는 것>이 생긴다. - 아무 것도 없던 무(無)에서 유(有)를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.
4. <할 일>이 보여서 하기도 하고, 안 보여도 하면 <할 일>이 보이기도 한다.
5. <할 마음>이 없었어도, 해 보면 ‘할 마음’이 생긴다.
6. 하면 할수록, <할 일>이 생긴다.
7. 안 해 버릇하면, ‘그 마음과 정신과 사고’가 가난해진다.
8. 전혀 <할 마음>이 없었는데도, 하면 ‘큰일’을 해 놓게 된다.
9. <하고자 하는 마음>이 있어서 성공하기도 하지만, 하기 싫어도 ‘습관’이 되어 행해서 성공하기도 하고, 억지로라도 ‘할 일’

을 해서 성공하기도 한다.

10. <어떤 일>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‘아무 일’ 이나 하다 보면 ‘제 할 일’ 이 확실히 생각난다. 그때 ‘생각난 것’ 을 행하여라.
11. 지난날 네가 <꼭 하고 싶은 일>만 해서 이같이 잘된 것이 아니다. 하기 싫더라도 행했기에 오늘날 성공한 것이다.
12. 하나님은 <해야 될 일을 놓고 하기 싫어하는 자>가 있을 때, 힘들어도, 마음에 안 들어도, 억지로라도 행하게 하여 ‘하나님의 뜻’ 을 이루게도 하셨다.
13. <실 가닥만 한 길>이 있어도, 희망으로 가다 보면 후에는 창대하게 되어 <큰길>이 된다.
14. <성령길>도 처음에는 ‘산 짐승이 다니는 길’ 이었다. 그 길을 따라 기도하러 다니고, 그 후에 ‘실 가닥 같은 길’ 이 있어 모두 다니다가, ‘찾길’ 도 내고 ‘아스팔트’ 도 깔아 놓으니 ‘오늘날의 아름다운 성령길’ 이 됐다.
15. <인생>도 처음에는 ‘생명의 에너지, 작은 세포’ 에서 출발하여 ‘온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’ 이 됐다.
16. <전쟁>도 처음에는 ‘한마디 다툼’ 에서 시작되어 ‘세계대전’ 까지 갔다.

17. <선>으로 실 가닥같이 시작하느냐, <악>으로 실 가닥같이 시작하느냐다.

18. <시작>이 중요하다. <어떤 쪽>으로 ‘실 가닥’ 같이 시작하느냐다.